

#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armth, Control a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정인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이진숙

Dept. of Child Welfare, Chongin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Lee, Jin 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armth, control and toddler's attachment security. Subjects were 83 three-year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Jeonju city.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were the Parenting Style Scale(Cho et al., 1999) and Attachment Q-set(AQS; Waters, 1987). Mothers rated the questionnaire and observed a child through AQS at ho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of the child attachment security was .39 and the range of attachment score was from -0.07 to 0.79. The scores of mothers' warmth and control were above the mean. The child's attachment security was predicted by mother's warmth. Mother's warmth appeared to be meaningful for child to develop the secure attach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characterized with warmth and control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hild's attachment security.

**주제어(Key Words):** 온정(warmth), 통제(control), 애착 안정성(attachment security), 권위있는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 권위주의적 행동(authoritarian parenting)

I. 서론  
모든 유아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아를 보호하고 양

육하며 적절한 발달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양육자가 필요하다. 유아의 개별적 능력과 발달적 단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은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 지적 성취와 같은 바람직한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Belsky, Lerner, & Spanier, 1984),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힌 부모는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Steinhauer, 1983). 많은 양육관련 논문들은 부모의 온정, 귀납적 훈육, 가혹하지 않은 처벌, 일관성 등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일관성있게 보고해왔다(Maccoby & Martin, 1983; 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 구체적으로,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 사회정서 발달을 가져오며(Belsky et al, 1984),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적인 부모행동은 아동의 분노, 공격성, 불순종 및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erville & Main, 1981; Patterson, 1980). Elder, Liker 와 Cross(1984)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참여수준이 낮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싸우고 화를 내며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Baumrind(1971, 1991)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 허용적, 권위있는 양육방식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권위있는 부모의 자녀는 다른 유형의 자녀보다 유능성, 성취, 사회적 발달, 자아지각, 정신건강 면에서 보다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위있는 부모'는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즉,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 온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녀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확고한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벌은 기꺼이 주는 부모이다. 반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와 복종을 중요시하고 자녀가 정해진 행동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매섭게 벌을 줄뿐 아니라 냉담한 부모이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며 자녀에게 벌을 거의 주지 않는 부모이다. Baumrind(1971)는 온정(nurturance)과 통제(control)를 부모 양육행동의 주

요 차원으로 가정하고, 높은 수준의 온정과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권위있는 양육방식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는 출생시부터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머니의 반응성과 그에 관련된 애착유형을 설명하는 Ainsworth의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기 애착관계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가정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많은 애착관련 연구들이 자녀의 애착 안정성 발달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행동유형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애착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온정, 반응성, 일관성 등은 안정적인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Barnett, Kidwell, & Kwan, 1998; Cohn, Cowan, Cowan, & Pearson, 1992; Crittenden, 1985; Mat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높다고(Barnett et al, 1998; Booth, Rose-Krasnor, & Rubin, 1991; Isabella, 1993; Londerville & Main, 1981)보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안정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애착 영아의 어머니에 비해 문제해결 과제에서 자녀에게 보다 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지적인 반면(Matass et al, 1978), 불안애착 유아의 어머니는 안정애착 유아의 부모에 비해 자녀를 지도할 때 보다 제한적이고 강압적이며 통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Booth et al, 1991; Londerville & Main, 1981) 밝혀졌다. Barnett 등(1998)은 안정애착 유아의 부모가 불안애착 유아의 부모에 비해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덜 통제적인 반면, 불안애착 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Cohn과 동료들(1992) 역시 어머니의 온정 정도에 따라 안정애착과 불안애착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불안애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홍계옥,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응임, 1998).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애착 유아의

어머니가 불안애착 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보다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일관성있고 귀납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애착관련 연구들은 Baumrind가 제시한 양육방식과 많은 공통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권위있는 양육방식으로 제시된 특성들은 안정애착과 관련되어온 일종의 반응적 양육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 사회화 및 애착 연구에서 긍정적 발달을 돕는 선행요인으로 비교 가능한 속성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애착과 특정 양육차원간의 가능한 연결고리를 시사해 준다.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에 대한 기술 역시 불안애착과 관련된 어머니 행동과 닮은 점이 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덜 반응적이며 보다 통제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애착이론가 역시 불안애착 유아의 어머니가 덜 따뜻하고, 반응성이 적고 보다 경직되었다고 기술해왔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반응성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양육방식과 불안애착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Andrews-Cameron, 1998).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애착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Baumrind에 의해 제시된 온정과 통제 차원은 유아의 애착발달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owlby(1982)는 애착대상을 거부적으로 경험한 유아는 자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무가치하고 비수용적이라고 형성하는 반면, 애착대상을 애정적이고 반응적으로 경험한 유아는 자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가치있고 수용적으로 형성한다고 하였다.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모델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통해 발달되므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의 반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홍계옥, 1995; 박응임, 1998)이 이루어져 왔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양육행동의 하위차원 각각에 따른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다루어왔다. 한편, 많은 양육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Baumrind가 제시한 양육방식 모델이 자녀 사회화에 관련된 부모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데 의

견이 모아지고 있다(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Baumrind의 모델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차원에 따른 애착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30개월 전후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차원에 따른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자녀의 애착 발달을 돕는 바람직한 양육행동 유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영환(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중의 일부로, 연구에 참여한 90쌍의 부모 중 어머니와 그 유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0개월 전후 유아를 둔 어머니 90명을 통해 회수된 자료 중 애착 Q-set 관찰 당시 유아의 연령이 20개월 미만과 38개월 이상인 경우와 부실자료 등 7부를 제외하고 총 8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24개월에서 35개월 유아가 77명(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37명(45.7%), 둘째가 39명(48.1%)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49명(59.0%), 여아가 34명(41.0%)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5세가 58명(7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39명(47.0%), 고졸 31명(37.3%), 전문대졸 13명(15.7%) 순 이었다. 전체 83명 중 33명(40%)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

지는 전업주부였다.

## 2. 연구도구 및 절차

### 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차원은 조복희 등(1999)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umrind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온정 20문항, 통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 요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녀와의 의사소통, 양육의 즐거움, 독립성 격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 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통제요인은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르도록 지도·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온정이  $\alpha=.87$ , 통제는  $\alpha=.71$ 이었다.

### 2)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은 Waters (1987)의 애착 Q-set(AQS)를 사용하였다. AQS를 통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측정은 가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평가해야 하므로 어머니는 가장 신뢰로운 관찰자가 될 수 있다(Waters & Deane, 1985; 이영환, 199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애착 Q-set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관찰자가 가정 혹은 해당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머니에게 애착 Q-set의 내용과 분류방법을 설명한 다음 어머니가 직접 카드를 분류하는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주일동안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 Q-set 카드를 분류하여 그 결과를 관찰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당부하였다. 1차 면접 후 일주일 이 지난 다음 관찰 기록지를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1차 면접시 어머니에게 전달하였으며 일주일 후 Q-

set 관찰 기록지와 함께 회수하였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분류에서 얻어진 점수와 기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박경자·나유미(1997)가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산출한 기준점수(36개월용)를 사용하여 각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t-검증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 및 통제를 직교하는 두 차원으로 두고 온정의 높고 낮음,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되는 4개 집단에 따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의 일반적 경향

먼저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수준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 점수 평균은 3.96, 통제는 3.89로 나타났다. 가능한 점수 범위가 1~5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온정과 통제 점수 모두 평균치 이상의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배경변수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2),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가계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F=3.08, p<.05$ ). 즉 고졸이하( $M=3.83$ ), 전문

<표 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 하위영역 | 평균(표준편차)   | 범 위       |
|------|------------|-----------|
| 온 정  | 3.96(0.43) | 2.87~4.73 |
| 통 제  | 3.89(0.45) | 2.58~4.75 |

<표 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온정 및 통제의 차이

|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F-value |
|----|------|------|------|---------|
|    | 평균   | 평균   | 평균   |         |
| 온정 | 3.83 | 3.90 | 4.08 | 3.08*   |
| 통제 | 3.97 | 3.87 | 3.83 | 0.92    |

\* p <.05

대졸(M=3.90), 대졸(M=4.08) 순으로 어머니의 온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애착 안정성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의 범위는 -0.07~0.79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며, 평균값은 .39로 나타났다(표 3). 본 연구와 유사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나중혜(1994)와 김영명(1997)의 연구에서 안정성 평균이 각각 .34, .35 이었던 것에 비해 볼 때 본 연구 대상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 점수의 범위도 보다 넓게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다.

Waters와 Deane(1985)의 분류와 같이 애착 안정

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3에 속하는 유아를 안정 애착 집단으로, 1/3에 속하는 유아를 불안애착 집단으로 분류해본 결과, 안정성 준거점수는 .31로 나타났다. 이정희(1993)와 나중혜(1994)의 연구에서는 각각 0.26, 0.27로 나타나 본 연구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는 성별, 출생순위, 가계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1/3은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1/3은 애착 안정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뒤 두 집단간에 온정과 통제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4), 통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온정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t=-3.64, p<.001).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어머니의 온정과 통제 점수 모두 평균치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정 정도 이상의 통제 수준에서 어머니의 온정성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정정도 이상의 통제 수준에

<표 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비교

| 연구        | 빈도 | 유아연령    | 안정성평균(표준편차) | 안정성범위      |
|-----------|----|---------|-------------|------------|
| 본연구       | 83 | 21~38개월 | 0.39(0.20)  | -0.07~0.79 |
| 이정희(1993) | 60 | 13~33개월 | 0.34(0.20)  | -0.13~0.68 |
| 나중혜(1994) | 21 | 24~36개월 | 0.34(0.26)  | 0.08~0.56  |
| 나유미(1997) | 41 | 11~18개월 | 0.42(0.14)  | 0.09~0.68  |
| 김영명(1997) | 43 | 24~30개월 | 0.35(0.20)  | -0.09~0.67 |
| 박용입(1998) | 44 | 50~56개월 | 0.30(0.21)  | -0.10~0.68 |

<표 4>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애착 집단간의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의 차이

|    | 전체(N=83)<br>평균(표준편차) | 애착안정성             |                   | t 값      |
|----|----------------------|-------------------|-------------------|----------|
|    |                      | 안정 애착<br>평균(표준편차) | 불안 애착<br>평균(표준편차) |          |
| 온정 | 3.96(0.43)           | 3.78(0.41)        | 4.14(0.29)        | -3.64*** |
| 통제 | 3.89(0.45)           | 3.94(0.46)        | 3.92(0.42)        | 0.17     |

\*\*\* p <.001

〈표 5〉 온정 및 통제 차원에 따른 애착 안정성의 차이

| 집 단             | 안정성 평균/D | 빈도 | 자유도 | 자승합  | 평균 자승합 | F 값   |
|-----------------|----------|----|-----|------|--------|-------|
| 4. 높은온정/낮은통제+-  | 0.53 a   | 7  | 3   | 0.34 | 0.11   | 3.60* |
| 1. 높은온정/높은통제++  | 0.47 ab  | 12 |     |      |        |       |
| 3. 낮은온정/낮은통제--  | 0.34 b   | 7  |     |      |        |       |
| 2. 낮은온정/높은 통제-+ | 0.31 b   | 14 |     |      |        |       |

\* p &lt; .05, D=Duncan test

서 어머니의 온정이 유아의 애착 안정성의 변이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온정과 통제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1), 온정은 낮고 통제는 높은 집단(2),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3), 온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집단(4)으로 분류하여<sup>1)</sup>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분류된 4집단에 따라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60$ ,  $p < .05$ ). 즉, 온정과 통제 차원에 따른 4집단 분석결과, 온정은 높고 통제가 낮은 집단,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 온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통제 정도의 차이보다는 온정 정도의 차이에 따라 애착 안정성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을 Baumrind의 양육 유형에 비추어 해석하면, 허용적, 권위있는 집단이 방임, 권위주의적 집단에 비해 애착 안정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0개월 전후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AQS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Baumrind가 제시한 부모의 온정 및 통제 차원에 따른 자녀의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온정과 통제 수준이 평균 이상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나 통제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온정 수준이 높고 통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공인숙(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온정 수준이 높은 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에 접할 가능성이 많아 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선행연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사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나중혜, 1994; 김영명, 1997)에 비해 본 연구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우선, 선행연구는 모두 현재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반 정도만이 기관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 둘째,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애착 기준점수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준점수(이영 등, 1997)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부연구를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들의 유아의 연령

1) 온정 점수와 통제 점수의 평균값(3.96, 3.89) 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1/2표준편차 이상인 집단과 평균-1/2표준편차 이하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 온정은 낮고 통제는 높은 집단,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 온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범위가 12개월~56개월 유아에 이르기까지 분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점수를 적용한 반면, 본 연구는 30개월 전후 유아로 한정하여 36개월용 기준점수를 적용한 것도 이러한 결과에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개월 전후 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조사한 이영환(1999)의 연구에서도 36개월용 기준 점수(이영 등, 1997)를 적용한 결과, 선행연구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제 차원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온정 차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행동표준 설정과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이상의 통제 수준에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 정도에 따라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온정과 통제 차원에 따른 4집단 분석결과, 온정이 높고 통제가 낮은 집단(허용적), 온정이 높고 통제도 높은 집단(권위있는)이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방임)과 온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집단(권위주의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Baumrind가 제시한 권위있는 양육방식과 자녀의 애착 발달과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온정이 높고 통제가 낮은 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경우 온정과 통제 모두 평균치 이상임을 고려할 때 허용적 양육이라기 보다는 권위있는 양육과 유사한 집단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권위있는 양육방식이 유아의 애착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사려된다.

반면, 본 연구결과 통제는 높고 온정은 낮은 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지나친 행동 표준을 강요하고 통제적이며

애정적이지 못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애착 발달을 저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Baumrind가 제시한 양육방식과 자녀의 애착 발달과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 유아를 둔 부모는 안정애착 유아의 부모에 비해 강압적·통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체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Barnett et al, 1998; Booth et al, 1991; Londerville & Main, 1981)와도 일치한다.

권위있는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 온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녀의 흥미와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행동기준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확고하고 필요한 벌은 기꺼이 주는 부모이다. 반면,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지나친 행동표준을 강요하고 통제적인 부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적절한 행동표준을 설정하여 일관성있게 지도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유아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가계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 차원에 근거한 양육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애착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포괄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후 애착의 선행요인 또는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모-자녀간의 양육행동에 대한 질문지 방법 외에 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면접 등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함으로써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종단연구에 의해 애착의 발달적 결과를 추적하는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애착 Q-set의 국내 준거를 사용하여 애착 분류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온정과 통제라는 두 차원에 따른 집단별 비교를 통

해 유아의 애착발달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양육방식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1997).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유미(1997). 한국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중혜(1994).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이 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 영, 신은주, 나중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영환(1996). 유아-아버지간의 실험실 애착유형과 가정에서의 애착 안정성: 1세 낯선 상황 분류와 3세 Q-set 관찰. *대한가정학회지*, 34(1), 177-187.
- \_\_\_\_\_(1999).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 *대한가정학회지*, 37(12), 91-102.
-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rews-Cameron, T. L (1998). African-American, urban preschool children's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Columbia University, Ph. D.
- Barnett, D, Kidwell, S. L., & Kwan, H. L. (1998). Parenting and preschooler attachment among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9(6), 1657-1671.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tern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103.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Encyclopedia Adolescence*. by R. Lerner, A. Peterson, J. Brooks-Gunn(Eds.), 746-762. New York: Garland.
- Belsky, Lerner, & Spanier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ooth, C. L., Rose-Kraser, L., & Rubin, K. H. (1991). Relating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 early attachment security and high risk statu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63-382.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d)*.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and E. Waters(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iatry*, 4, 417-432.
- Crittenden, P. M. (1985). Social networks, quality of child rear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6, 1299-1313.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s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Elder, Liker, & Cross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6, 109-158.
-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Child Development*, 64, 605-621.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o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Y.: Wiley.
- Matas, L., Arend, R., & Sroufe, L. A. (1978).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Patterson, G. R. (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the Child Development*, 45(5), 1-64.
- Steinberg, I. Lamborn, S. D., Darling, N. S., & Mounts, S. M.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9-36.
- Steinhauer, P. D. (1983). Assessing for parenting capac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3, 468-481.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